

세대갈등이 심각하지만 귀카는 귀여워



충코

일상의 순간을 철학적 시선으로 분석하는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세대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대가 10대를, 30대가 40대를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이전 같으면 비슷한 나이대로 묶였을 사람들이 불과 10년도 안 되는 차이로 서로 거리감을 느낍니다. 세대의 범위는 갈수록 좁아지고, 다른 세대와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같은 년도 1월생이 12월생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지 과장 섞인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세대 간의 골이 깊어지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공통의 소통의 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불과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국민이 다 함께 보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0살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강호동, 유재석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뉴스를 시청하는 경우도 많았죠. 사람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대를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중매체는 이미 낡은 매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SNS를 통해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러면서 각 세대는 자신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만 보게 됐습니다. 강호동, 유재석 같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유명인은 줄었고, 다른 세대의 사고를 접할 일은 무척 적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해 일본의 철학자 다이고 쿠 다케히코는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은 중앙에서 정보를 짜주지 않고 각 사람들이 정보를 만들어내며 소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의 진실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TV나 신문에서 말하는 공통의 진실을 모두가 보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믿으니, 그 믿음에 기초해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가 자신이 교류하는 사람들과만 진실을 공유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진실을 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의 기관에서 전하는 통제된 진실보다 더 폭넓은 것을 알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계속 보던 것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알고리즘은 이걸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비슷한 집단끼리 공유하는 정보에만 갇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마음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시 공통의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대중매체와 중앙집중적 기관이 힘을 잃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실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답은 인간의 공통된 감정에 주목하는 겁니다. 남녀 노소 누구나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측은지심입니다. 무고한 존재가 고통에 처했을 때 나도 함께 고통스러워지는 마음이지요. 우물에 기어 들어가려는 아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 얼른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측은지심은 세대를 넘어서는 감정입니다. 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고통받는 누군가를 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시대에 세대 간 소통은 바로 이런 공통의 감정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20대와 40대는 서로를 경멸하더라도, 우물에 기어 들어가려는 아이를 보면 똑같이 화들짝 놀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저 세대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점을 곰곰이 곰씹을수록 상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존재에서 어딘가 친숙한 존재가 됩니다.

귀카가 열어준 자리

특히 저는 요즘 귀여움에 주목합니다. 귀여움은 SNS 시대를 지배하는 감정입니다. 귀여운 동물이 나오는 짧은 영상이 전 국민의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게는 요즘 특히 귀카 영상이 많이 뜹니다. 호주에 사는 설치류인데, 웃는 표정으로 나뭇잎을 먹습니다. 참 귀여워서 인형으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귀여움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자극하며 즉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귀여움도 세대를 초월하는 감정입니다. 작은 강아지를 보면 10살짜리 꼬마도, 80대 할아버지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을 느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개를 무척 키우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강아지 한 마리 키워 볼 생각 없냐고 여쭙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하셨습니다. “싫어! 나는 개도 싫고 닭도 싫고 돼지도 싫고 다 싫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KBS <동물의 왕국>을 챙겨 보시던 걸 고려하면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완강하셨던 이유는 사실 정말로 개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별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양계장을 하셨었고, 작은 개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 키우던 모든 동물과도, 할아버지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동물들에게는 처음부터 마음을 안 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동물에 대한 애착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런 애착을 자신의 삶에 들이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느끼셨을 뿐이죠. 어쩌면 할머니는 자신이 곧 떠날 것임을 느끼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는 외할머니댁에 살게 됐는데, 언젠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여윈 후 몇 년을 혼자 계신 게 외로워 보여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지 않겠냐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답하셨습니다. “싫어! 정을 붙이면 안 돼!”

비슷한 감정선이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귀여운 동물을 보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그 존재와의 이별을 걱정하셨고, 아예 처음부터 연을 안 맺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두 할머니의 비슷한 반응을 보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귀여움은 한 사람의 경계를 허무는 체험이라는 걸요. 평상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장벽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온 것만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특히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과 남의 것을 나누고, 나의 소유물을 늘림으로써 자아의 안정감을 느끼길 추구한다고요.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유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대학 간판, 명품, 비싼 자동차를 남에게 보여주며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느낍니다.

귀여움이 무너뜨리는 벽

그런데 귀여움은 바로 이러한 자아의 장벽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귀여운 퀴카나 아이는 소유물을 통해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앞에서 나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엄격하게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귀여움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이게 우리가 귀여운 대상을 통해 큰 위로를 얻는 이유입니다. 평상시 내 것과 남의 것을 엄격히 나누는 삶의 태도는 알게 모르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물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그렇게 내 자아가 빈약해지면 어떡하나 끝없이 두려워하며 애쓰는 삶은 정신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귀여운 대상은 소유물로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몫을 다하며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평상시의 전전긍긍하던 태도를 내려놓고, 잠시나마 휴식을 느끼게 됩니다.

2020년대의 특징은 귀여운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SNS의 영상뿐만 아니라 거리의 매점에도 귀여운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30대 어른도 가방에 귀여운 인형을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인 세상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나 귀여움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유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이 무척이나 고달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와중에 귀여운 대상은 삶의 작은 위로와 휴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귀여움을 통한 자아의 허물어짐의 체험은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 공통된 체험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깊이 생각한다면, 서로의 세대를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